

성소는 젊음 자신의 고유한 생각, 거룩한 부르심 순종



11명의 젊은 여성들이 수도서원을 함으로써 탄생했습니다. 성녀 마리아 도메니카 마자렐로는 돈보스코와 함께 살레시오 여자수도회의 공동 창립자로 불리며 청소년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사랑을 고유의 스타일로 충실하면서도 창의적으로 재해석하여 살레시오 여성 수도자를 키워내는 훌륭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1874년 첫 분원 개설 이후 현재 5대륙 92개 국가에 뿌리를 내렸으며, 현재 20,000만여 명의 회원들이 돈보스코와 마리아 도메니카의 마음으로 청소년들의 전인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1957년에 들어와 청소년 교육에 헌신하고 있다. 성소 주일(거룩한 부르심)로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성소를 생각하고 찾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특히 오늘 교회와 수도회가 젊은이들을 위하여 다채로운 행사를 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고유한 성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우면서 오늘같이 살레시오수녀회에서 매년 성소 주일 행사를 한다.'고 정 데레지나 수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울대교구 시흥4동 성당은 5월 12일(성소주일)을 맞이하여 초등부 주일학교(정미랑 데레지나) 수녀님과 중고등부(현월심 수산나) 수녀님의 인솔 아래 주일학교 복사단, 중고등부 학생 및 교사와 자모회 등 총 17명이 신길동에 있는 살레시오 관구 수녀원을 방문하였다. 이날 행사는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사제와 수도자, 그리고 선교사들이 하느님의 뜻을 순종하며 수렴하는 수녀원을 방문하여 젊은이들의 1일 성소 체험 계획에 먼저 살레시오 수도원 소개를 하였다. 살레시오 수녀회는 이탈리아에서 1872년 8월 5일 마리아 도메니카를 포함한



천년 이상 걸쳐 기록된 원저자는 하느님이신 성경



본당은 주일 교중미사 전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교육 담당 류현숙(루시아) 수녀님께서 예비신자 교육을 5월 12일(성소주일)에도 예비신자 13명과 재교육 수강자 7명에게 데이케어센터 2층 교리실에서 제5과 성경이란 무엇인가? 대하여 교육하였다. 수녀님은 "성경이란 성령으로 영감을 받아 문자로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이며 구약성경 46권과 신약성경 27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과 성전(聖傳) 곧 '거룩한 전통', 성경의 형성, 성경을 읽는 마음의 자세, 성경의 장과 절표기 등에 대한 강의를 하셨다.

